

건축문화 **사라망** 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접속하신 후, '건축
 문화사라망' 을 클릭하시고 '홍보이메일' 또는 '연락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신 후 구독 가능합니다.



도시정책 참여형 프로젝트 2011 광주도심재생 전국 공모전 과정과 결과 그리고 과제

2011년 제12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금상
한지산업지원센터



광주 학생입해수련원 건축설계공모

사그라지지 않는 열정을 가진 건축사
 - 양동협 건축사 인터뷰

시론 02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_ 김은영

작품소개 03

2011년 제12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금상 - 한지산업지원센터

특집기획 04-05

도시정책 참여형 프로젝트 '광주도심재생 전국 공모전' 과정과 결과 그리고 과제

건축과 도시계획 06

세계의 신도시_ 6부 - 사이버지아, 셸머린 _도영준

건축과 도시철학 07

현대건축의 가치관 변화의 혼돈 _손승광

설계경기 08

광주 학생입해수련원 신축공사 건축설계공모

사람 & issue 09

사그라지지 않는 열정을 가진 건축사 _ 양동협

영화 '건축학개론'의 불편한 진실
 : 건축가? 건축사!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김은영 부장
광주 비엔날레 전시부
key@gb.or.kr

최근 이른바 '골목길 투어'가 인기다. 골목길 답사, 골목길 명상, 골목길 기행... 골목길 따라 과거의 고독과 우울과 추억을 더듬어가는 것이 일상의 번다함에서 벗어난 휴식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을 정도로...

1년 전 세상을 떠난 우리시대의 큰 이야기꾼 박완서의 소설 가운데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가 있다. 자전적 성장 소설인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의 머리말은 '언제부터인가 동네 뒷산이 험하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풍경'에 대한 단상으로 시작된다.

소설 속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풍경에 대한 단상

"...물도저의 힘보다 망각의 힘이 더 무섭다. 그렇게 세상은 변해간다. 나도 요샌 거기 정말 그런 동산이 있었을까 내 기억을 믿을 수 없었을 때가 있다. 그 산이 사라진 지 불과 반년 밖에 안됐는데 말이다."

그 글을 읽으며 나 역시 아련한 심상에 젖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지나간 것은 모두 아름답다고 느끼는 때가 많았으므로...

'과거의 것은 아쉬운 것이 얼마나 더 많은가. 세월의 부피만큼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면 기억 속의 풍경은 모두 환영이 되고 마는 것인가.'

광주도박이인 내 삶의 공간은 서구에서 북구, 북구에서 북구로 옮겨져 왔다. 몇 차례 변화에도 불구하고 '몇 분 거리'에 갇혀 있었다. 좋다면 좋고, 답답하다면 답답한 공간일 수 있지만 그 공간이 내 추억 속에서 만큼은 드넓은 풍경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최근 들어 깨달았다.

얼마 전 어린 시절 살았던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다. 사동에서 양림동, 서동에서 백운동 일대에서 뜻밖에도 내 어린 시절 보았던 거리 풍경과 길모퉁이의 정서를 만날 수 있었다. 빠른 변화 속에서 이처럼 오랫동안 옛 풍경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시간이 정지돼버린 것일까. 자연스럽게 추억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의 추억 속 그곳, 그 풍경

우표수집이 취미였던 오빠를 따라 새로운 우표가 나오는 날이면 사형제가 줄을 섰던 우체국. 70년대에 치과를 다녔던 일은 지금 생각하기에도 물론이고 당시 형편으로도 커다란 호사였음에도 "넋타가 나면 좋은 데 시집을 못 간다"는 엄마의 신념으로 치아가 흔들릴 때마다 끌려(?)가곤 했던 박치과. 최부자집 아래 사동 오거리에서 해바라기와 오징어 그림을 크게 그려놓고 온 동네 친구들과 해 저물도록 술래잡기를 하던 그곳 그 풍경이 그대로였다.

열 살배기 소녀. 늘 술래만 도맡아 하던 나의 모습을 길모퉁이 골목길에서 만나고 또 만났다. "...엄마가 부르기를 기다렸는데/강아지만 멍멍 난 그만 울어버렸네/그 많은 어린 날의 꿈이 숨어버려/잃어버린 꿈을 찾아 헤메는 술래야/이제는 커다란 어른이 되어..." 조유필의 '못찾겠다 꾀꼬리'의 술래처럼 어린 시절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반갑고 안쓰러워 마음이 울컥했다.

'옛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은 그 모습은 무슨 의미일까. 도시를 꾸미고 채우는 형식과 내용이 모두 바뀌고 나날이 달라져가는 세상 속에서 10년 전,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인 공간은 지체되어 있다고 해야 할까? 퇴보한 것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마음 속 고향의 풍경으로 남아주어 고집과 행복한 일이라고 위안 삼아야 할까?

한 사진작가가 도시의 골목을 탐사했던 기록을 엮어낸 책을 본 기억이 난다. 골목길 기행 대상 중에 인상 깊었던 두 도시가 있었다. '골목이라 하는 곳도 모두 신작로' 같았던 창원과 '신작로도 모두 골목' 같았다는 목포였다. 그 두 도시의 골목길은 도시의 숨결 혹은 그곳에 사는 이들의 삶을 담은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 작가는 골목길에서 도시민들의 삶의 애환과 도시 전체의 정체성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구구절절 전해주었다.

우리는 골목길에서 새로운 단상을 떠올리고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읽는다

책을 읽었던 당시 나는 작가가 속속들이 들춰내는 골목길의 모습을 보면서 호남지역에 많이 남아있는 골목길을 저개발의 상처로만 해석하면서 영호남 차별의 정치적 상황에 분개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피해의식에 갇혀있던 나 자신의 편협한 독법에 웃음이 나온다. 상황은 많이 변했고, 이른바 '근대적 풍경'을 바라보는 가치가 달라졌다. '골목길'이 더 이상 낙후의 상징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골목길에서 새로운 단상을 떠올리고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읽는다.

최근 이른바 '골목길 투어'가 인기다. 골목길 답사, 골목길 명상, 골목길 기행... 골목길 따라 과거의 고독과 우울과 추억을 더듬어가는 것이 일상의 번다함에서 벗어난 휴식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을 정도로...

개성 박적골이 고향인 작가 박완서는 늘 고향산천을 그리워 하면서 동네 뒷산 어귀가 사라져버린 것에도 가슴 아파했다. 나의 고향은 떠난 지 삼십 수년이 다 되어가도록 거기 그대로이다. 사라져버린 것도, 그 곳에 거기 정말 그대로 있어도 다른 의미에서 고통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작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고향의 상실감을 위대한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반면 우리는 한때 개발의 뒷전에 밀려 오글오글하게 살아가고 있는 오래된 동네가 남아있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 같다.

우리가 다시 열세 살이, 스무 살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어린 시절 살았던 동네 한 바퀴 돌며 사색하고 걷는 사이 다시 '복숭아 빛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참 행복한 일이다. ☼

건축문화 **사랑** 을 후원하는
아펙스
www.아펙스.com

학교 교실마루, 체육관 마루 등 실내건축 설계, 시공
압성목재, 흡음재 등의 건축자재 설계, 시공

High Quality Interior Flooring

■ 설계 및 시공시 연락주시면 도면, 시방서 등을 제공에 드립니다.

아펙스산업개발(주)
광주 북구 삼각동 593-2 2F
TEL (062) 573-6730 FAX (062) 573-6734

용봉지구 **생비촌** 생고기전문점 한우마을
한우농장 직거래로 신선하고 저렴합니다.

비엔날레
용봉지구 ● 해탈날2호점
● 광운
● 현대아파트 3차
● 문서드
● 현대자동차
● 신안다리

북구 용봉동 1359-6
(현대 3차 해탈날 옆)

건축문화 **사랑** 후원의 집
한우마을 생고기, 꽃등심, 꽃살, 갈비살, 생삼겹, 육계장, 생고기비빔밥 전문
추운날씨 기억보강에는 생고기! -단체예약시 특별서비스 제공
단체회식, 가족모임 환영 **예약문의 523-1218**

(주)공간중인건축사사무소
강 필 서
Tel (062) 380-7511-5
Fax (062) 380-7505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78-7
GS빌딩7층



2011년 제12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금상
- (주)라인 종합건축사사무소 김남중 건축사작

작품명 : 한지산업지원센터
위 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4-2번지
규 모 : 지하 1층, 지상 4층
설 계 : (주)라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용 도 : 문화집회시설(전시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시 공 : (주)경방종합건설

한지산업지원센터
Jeonju Hanji Industry Support Center



“살아 숨쉬는 한지의 과학적 원리처럼 살아숨쉬는 체험과 관람의 장을 창조한다.”

전주 완산구 경원동에 위치한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정보의 소통 및 교류의 장과 도시의 상징적 간판의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집객효과를 유발하도록 계획했다.

공간구성의 기본방향은 살아 숨 쉬는 한지의 과학적 원리에서 착안하여 그것의 생산 현장인 파일럿 시설을 살아 숨쉬는 체험과 관람의 장으로 표현되었다.

평면계획은 로비, 홀을 적정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기능과 분위기를 연출 가능하도록 하고 Folding Architecture를 이용한 아트리움 설계(매개공간)는 방문자의 시선을집중 시키는 core attraction으로 계획하였다.

입면계획은 한지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외장 마감과 미관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였고, 한지의 반 투과 물성을 이용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동선계획은 전시/연구시설과 파일럿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Barrier FreeDesign을 적용시켜 기능별 조닝으로 운영, 관리하는 업무가 상호 유기적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 수평 동선계획을하였다.



도시정책 참여형 프로젝트 '광주도심재생 전국 공모전' 과정과 결과 그리고 과제

- 광주광역시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미래 지향적인 건축 및 도시주거의 방향성 모색을 위해 '2011 광주도심재생 전국 공모전' 개최
- '도심재생'이라는 주제 하에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시민과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평가해 보는 참여형 도시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진행



2011년 가을, 광주광역시는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와 함께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의 건설을 목표로 새로운 시대정신과 도시철학이 깃든 미래지향적인 건축 및 도시주거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광주도심재생'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광주지역에서 전국 단위 규모로써는 최초로 '도심재생'이란 주제로 열린 공모전은 2011년 6월부터 계획되어 9월부터 공모가 진행되었으며 약 2달간에 걸쳐 작품 접수와 1차 심사, 2차 심사를 거쳐 10월 27일 최종 수상작을 발표하였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과 결과 그리고 향후 과제를 기획지면을 통해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광주도심재생 공모전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3구역 일원

2011년 6월 - 공모전사업 추진 확정

2011년 4월 초,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사)한국건축기협회 광주광역시지회는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전 문화제 행사와는 차별화된 단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2011년 11월 개최할 제8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를 5개월 앞둔 6월 경,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전국 단위 '도심재생 공모전'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침 문화제 주제 '온고이재생 溫故而再生'이었던 터라 '도심재생'이라는 주제는 공모전 참가자들을 비롯한 광주시 도시정책 관계 공무원, 관련 전공 교수, 건축사, 학생, 일반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었다.

2011년 7월 - 공모전 운영위원회 구성

문화제 운영위원회는 전국단위 공모전을 진행하기 위해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광주·전남지역 도시 건축 분야 전문가들을 선별하여 '공모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11년 8월 - 전국 대단위 공모

공모전 운영위원회는 약 2달간 전국에서 열린 공모전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공모요강을 마련하였고, 전국 모든 대학 건축·도시·주거 관련 학과와 관계 기관 등에 공모요강 포스터를 우편발송하고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알리는 등 전국 대단위 홍보를 진행하였다.

2011년 광주도심재생 공모전 요강-주요부분

1. 공모전 주제: 광주도심재생(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도시주거디자인)
2.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 3구역 일원
3. 참가자격: 전국의 건축과 도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자
4. 신청서 교부 및 등록
 - 일시: 2011년 9월 5일 (월) ~ 9월 9일 (금) 오후 6시
5. 작품접수
 - 일시: 2011년 10월 6일 (목) ~ 10월 7일 (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6. 작품제출규격: A1 2매
7. 심사: 1차 심사와 2차 심사(공개심사)
 - 1차 심사: 2011년 10월 10일 (월)
 - 2차 심사: 2011년 10월 27일 (목)
 -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세미나실)
 - ※ 1차 심사서 특선 이상으로 선별된 8작품 중 공개심사로 대상작, 우수작 선정
8. 시상
 - 대 상 1점: 상장 상패 및 상금 500만원 (광주광역시장상)
 - 우수상 2점: 상장 상패 및 상금 각 200만원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장상)
 - 특 선 5점: 상장, 상패 및 상금 각 50만원
 - 가 작 10점: 상장 및 상패
 - 입 선 다수: 상장 및 상패

2011년 9월 - 공모전 신청서 교부 및 등록

한 달간의 공모전 홍보 후 9월 5일 신청서 교부를 시작하였다. 5일 간의 신청서 교부 결과 전국 각지 대학생들을 비롯한 건축사, 일반인 등 64개 팀이 등록하였고 광주지역이 아닌 타지역 참가자들의 등록률이 30%를 넘어섰다. 열렬한 반응은 아니었지만 첫 해로 시작된 전국 공모전 치고는 소기의 목적(도시주거 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 유도)을 달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2011년 10월 - 작품접수, 1차 심사

참가 신청 등록한 64개 팀 중 10월 6일부터 7일 까지 작품접수 기간 내에 제출한 49개팀 작품의 1차 심사가 10월 10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작품접수 시 주최측 고유번호를 기입하도록 하였고 소속이나 이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식 또한 금지하여 그 어떠한 것보다 작품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 심사는 당초 계획대로 운영위원 7인이 심사하였는데 심사위원 개인마다 우수 작품을 선정할 후 가치와 입선작을 우선 구분하고 다수의 입선작 중 2차례의 투표를 거쳐 특선 이상 8작품을 선정하였다.

특선 이상 8작품에 선정된 팀

연 번	이 름	소 속	작품명
1	김예림	아주대학교 대학원 건축학부	Urban Awakening
	이진영		
2	이승준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류 : 흐름 류, 머무를 류
	김수진		
3	김경진	아주대학교 대학원 건축학부	Street City
	정동선		
4	이창현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Solution from thepast
	김동준		
5	김동준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Stream of Interface
	김영현		
6	이은호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고실을 통한 마당의 연결
	설민지		
7	이소정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Urban Acupuncture
	홍상준		
8	고민정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동명동 정주(定住) 길잡이
	김민재		

2011년 10월 27일 - 2차심사

1차 심사서 선정된 8개 작품의 2차 심사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세



▲ 10월 10일 진행된 제1차 심사



▲ 10월 27일 진행된 제2차 심사(공개심사)



▲ 제8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운영위원회

구 분	이 름	소 속
위 원 장	손승광	동신대학교 건축학과/교수
	심상봉	광주건축사회장/건축사
	강남구	한국건축가협회회장/건축사
위 원	남승진	동아인체대학교 건축과/교수
	강필서	(주)공간동인 건축사무소/건축사
	염대봉	조선대학교 건축학과/교수
	정명환	디에이 건축사무소/건축사

▲ 공모전 운영위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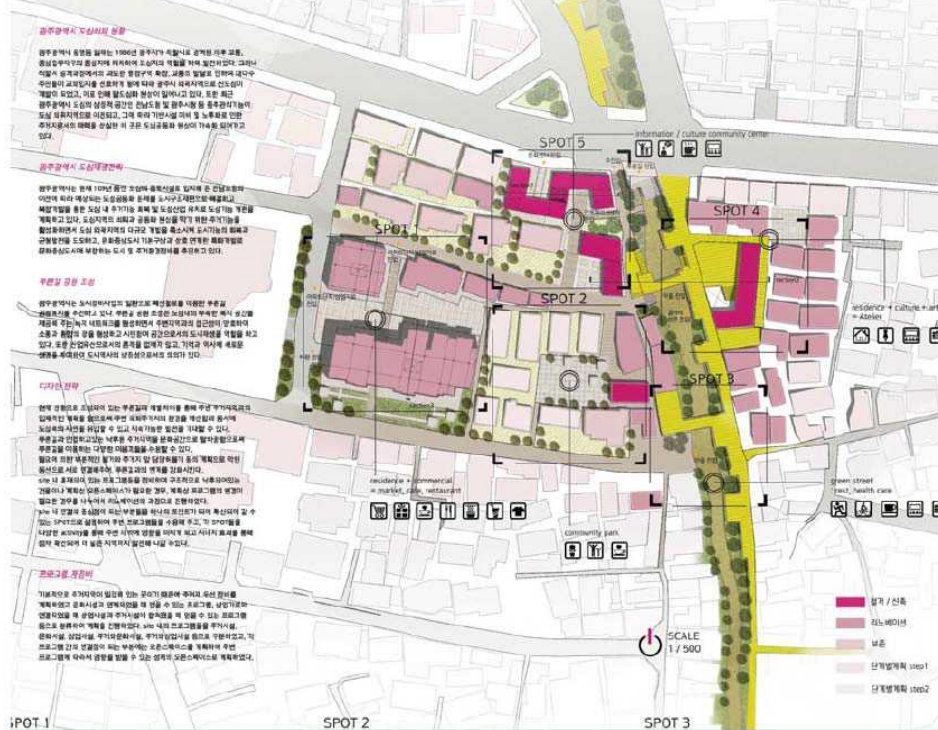


▲ 닉후된 동명 3구역



▲ 공모요강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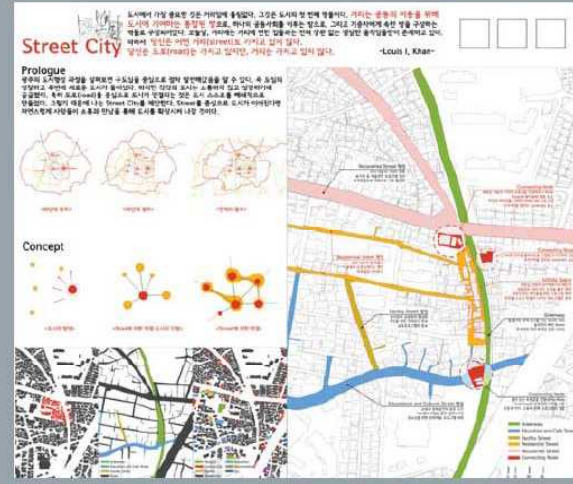
Urban Awakening



▲ 대상 : 김예림 + 이진영(아주대학교 대학원 건축학부)팀의 'Urban Awakening'



▲ 우수상 : 이승준 + 김수정(조선대학교 건축학과)팀의 '류 : 흐를 류, 머무를 류'



▲ 우수상 : 김경진 + 정동선(아주대학교 대학원 건축학부)팀의 'Street City'

미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심사는 일반 시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심사로 진행하였으며 건축사들을 비롯한 대학교수, 관계 공무원, 학생, 시민 등 10여 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1차 심사에는 달리 외부인사로 구성된 2차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더욱더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였다.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송 건	대호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김영현	청주대학교 도시계획학과 / 교수
	이재훈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 교수
위원	은민균	우석대학교 건축학과 / 교수
	최정민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 교수

▲ 2차 심사위원 명단

심사 대상자 특선 8개 팀은 각각 5분 정도의 작품설명회를 하였으며 심사위원들과의 질의응답 및 방향성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출품자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이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그 최종 심사결과 대상작에 김예림, 이진영(아주대학교 대학원 건축학부)팀의 'Urban Awakening'이 선정되었으며 우수작 2점에는 이승준, 김수정(조선대학교 건축학과)팀의 '류 : 흐를 류, 머무를 류', 김경진, 정동선(아주대학교 대학원 건축학부)팀의 'Street City'가 선정되었다.

송건 위원장 전체심사평

"공통적으로 계획대지와 푸른길과의 연계이상 강화에만 치우치다보니 동명로와 동명로에 직교하는 동명로 20번 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해소와 주위의 모든 길이 푸른길과 나리에 직교하는 부분의 고저차를 극복하는데 소홀하고 부족하였습니다.

장소성의 재생을 위한 현지 수복형으로 계획한 대부분의 작품에서는 보전 부분의 특성 및 그 의도 설명이 혹은 방법론이 없었습니다. 또한 전범개량으로 구상한 작품에는 장소성의 재생, 새로운 도시주거 건축의 규범적 형태 제정이 약했습니다.

푸른길의 Linkage를 잃지 않고 강하게 한 것과 동서축의 좁은 길은 푸른길과 직교해 주변과 연장하여 연계한 작품에 대해 설계 원칙을 지켰다는 점을 높이 사 많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최종 심사가 끝난 후 광주시에서는 심사결과가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였으며 광주지역 대표 7곳의 일간지와 동아일보를 비롯한 중앙지, 연합뉴스, 뉴스와 같은 인터넷 신문 등에서 대적으로 보도되어 낙후된 도시 활성화 대책에 대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2011년 11월, 12월 - 시상 및 전시, 작품집 제작



▲ 11월 2일 건축인의 밤 행사에서 광주시 강운대 시장이 대상 수상자에게 직접 시상하였다.

11월 2일, 제 8회 광주 건축·도시문화 분행사 제 1차 행사가 '건축인의 밤'에서 광주 도심재생 공모전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대상으로 선정된 팀에게 광주광역시 강운대 시장이 직접 시상하였으며 우수상과 특선 (새광주건축단체연합회 심상봉 대표 회장이 시상하였다.

이날 강운대 시장은 "광주시가 추구하고 있는 도시정책에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향후에도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이의 공모전이 광주의 올바른 건축문화와 도시거버넌스 창달하는데 일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 제8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입상작 전시

시상식과 함께 건축·도시문화제 분행사 가 열린 11월 3일부터 6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시대상을 갖고 대상작품을 비롯한 우수작, 특선작, 기적, 입선작까지 총 33작품이 관람객들에게 전시되기도 하였으며 12월 말에는 작품집이 출간되어 전국 모든 대학 건축·도시·주거 관련 학과와 관계 기관 등에 배포되었다.

공모전 행사의 운영위원장 송승광 교수(순천대학교 건축학과)와 총괄기획을 맡은 운영위원 강필서 건축사(주공건설인 건축사사무소)는 "이번 도심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이 아사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를 정비하고 창조적인 주거문화를 형성하는데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향후 개최될 공모전은 더욱더 대중 참여형으로 진보하여 전문가와 시민, 지방정부와 전문가, 전문가와 학생들의 소통의 장으로써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참여형 도시정책의 선진사례

캐나다 밴쿠버 - 밴쿠버는 1980년대부터 활기찬 경제개발을 통해 도시개발을 추진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도시정책을 펼친 것으로 유명하다. 시장부가 시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매우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배경에는 다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구구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물이나 시설들을 결정하는 경우 부시장이 주관하는 위원회에 소수인종 대표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운영을 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공공관리제도와 유사한 제도인 스투어드십(Stewardship)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스투어드십제도는 시에서 개발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전문가, 시민 등 관련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여 개발계획이 확정되기까지 행정 및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원천적으로 개발 및 계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와 문제점을 차단할 수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미국 시애틀 - 시애틀의 도시기본계획이 여타의 기본계획과 다른 점은 수립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시민참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마을단위를 기본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그 바탕 위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독특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진척에 대한 개발방향을 정하고 그 기본이 되는 핵심은 마을계획이고 마을계획은 자연계획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단 모든 마을이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 성장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일본 요코하마 - 요코하마는 주민참여를 통해 도시개발을 추진하였는데 1988년 조성된 '미나토미라이21'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개발자구의 명칭을 정하는 데도 시민공모를 통해 추진하였고 쇼핑거리인 모토마치 거리 바사치 거리 등도 주민의 참여 속에 도시개발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개발은 당시 요코하마 대학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에 대한 새로운 연구 붐이 일고 있었고 행정과 대학 그리고 주민들 간의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세타가야구 - 세타가야구는 일본에서도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을 가장 앞서 체계적으로 꾸려가고 있는 기초 지자체로 유명하다. 1975년부터 2004년까지 세타가야구 청장을 지낸 요코야 케이지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도시행정을 펼쳤는데 주민들의 의사를 들으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를 만들어가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시장의 주요한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따르면서 행정은 거기에 서브하는 역할만을 맡도록 하였으며, 무엇보다 도시계획에 있어 주민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행정 등이 뒤에서 도와주고 협조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 위의 선진사례는 건축문화사상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호까지 게재된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이명규 교수의 원고를 일부 발췌하였음을 밝혀둔다.

세계의 신도시_ 6부

》 말레이시아 행정수도-사이버자야, 부동산 개발의 좋은 선례지-섬머린

- 1부 : 개요 호주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스주 그린피스 - 2011년 9월호
- 2부 : 군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신수도 내피도, 캐나다 최초 기업도시 돈밀스 - 2011년 10월호
- 3부 : 간척지의 중심도시 및 주도 퀘리슈타트, 세계안보정책에 의한 신도시 로스앨레모스 - 2011년 11월호
- 4부 : 대규모 기업도시 리포카라와치, 민간기업에 의한 단독주택단지 미션베이호 - 2011년 12월호
- 5부 : 첨단그린시티 바우반, 국토개발(담)을 위한 배우도시 볼더시티 - 2012년 1월호

건축과 도시계획이란 지면을 개설하여 2011년 4월호부터 8월호까지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김현숙 교수의 전라북도 전주시 도시계획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011년 9월호부터는 세계 여러 신도시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도시계획 전문가인 호남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도영준 교수의 원고를 연재·기획하였다.

도영준 교수
호남대학교 도시계획학과
Urban-00@hanmail.net



Town of Cyberjaya

사이버자야는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팔라렝푸르시 도심에서 남쪽으로 약 50.0km 지점, 첨단과학연구단지 (science park)를 포함하고 있는 신도시이며, 섬머린은 미국 서부 네바다주 남동쪽 끝 클라크(Clark) 카운티 중앙부 라스베이거스시의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신도시이다.

사이버자야/Town of Cyberjaya/말레이시아 행정수도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팔라렝푸르시 도심에서 남쪽으로 약 50.0km 지점⁽¹⁾, 첨단과학연구단지(science park)를 포함하고 있는 신도시(new planned township/it-themed city)로 면적 약 28.9km²에 인구⁽²⁾는 약 1만 명(2009년)이며, 말레이시아의 실리콘밸리라고도 부른다. 사이버자야의 도시계획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이버자야는 MSC⁽³⁾의 핵으로 개발하고 있다.
- ② 1966년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Putrajaya) 서쪽에 R&D센터의 입지가 선정되면서 도시개발의 기폭제가 되었다.
- ③ 1997년 3월 공식적인 착공식 행사가 거행되었다.
-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MSC를 개발하기 위하여 MDC⁽⁴⁾를 설립하여 개발과 관리를 책임지게 하였다.
- ⑤ 2006년 제1단계 개발(면적 약 1,430ha)을 위한 야심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1년 이후에는 면적 약 1,460ha에 대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 ⑥ 사이버자야의 개발주제는 크게 3가지⁽⁵⁾로 요약할 수 있다.

- (1)지점 : 행정구역은 셀랑고르(Selangor)주 남부 세핀(Seremban)시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시 서쪽에 바로 접하고 있어 하나의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 (2)인구 : 상주인구는 약 1만 명이나 주간활동인구는 약 37만 명이다. 상주인구의 대부분은 400여개 회사에 근무하는 지적 중산자와 대학생들이다.
- (3)MSC : Multimedia Super Corridor. 푸트라자야시와 사이버자야시를 포괄하여 팔라렝푸르 시내의 유명한 Petronas Towers에서 팔라렝푸르 국제공항까지의 지역(15 x 50km)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말레이시아의 국제적인 지식정보 집적지역으로 개발하려는 곳의 이름이다. 오늘날에는 MSCM(Multimedia Super Corridor in Malaysia)로 변경되었다.
- (4)MDC : 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 오늘날에는 줄인 말을 MDC에서 MDeC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 (5)3가지 :

- 첫째 국제적인 멀티미디어 중심(A leading edge multimedia centre that will attract world-class multimedia/IT companies)
- 둘째 도시기반구조와 IT시스템의 섬세한 접목(Sophisticated and state-of-the-art integrated infrastructure and IT system)
- 셋째, 효율적인 대중교통시스템 도입(Sophisticated and efficient transportation systems with an emphasis on public transport)

섬머린/Unincorporated Community of Summerlin/활기 넘치는 부동산 개발의 좋은 선례지

미국 서부 네바다주 남동쪽 끝 클라크(Clark)카운티 중앙부 라스베이거스시의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신도시(planned community)로 인구는 약 10만 명(2009년)이다. 섬머린의 도시계획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1950년대 중반 하워드 휴지스⁽¹⁾가 1만ha의 토지를 매입하여 신도시 개발을 구상하였다.
- ② 1980년대 후반 HHC⁽²⁾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을



건설 중인 사이버자야 중심지가전경 - 도면의 오른쪽 남쪽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동쪽은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이다.

- 건설하였으며, 1990년부터 본격적인 도시개발이 시작되었다.
- ③ 도시는 다양한 토지이용⁽³⁾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다.
- ④ 활기 넘치는 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격 및 주택 등을 제공하였다.
- ⑤ 도시는 5개 지구⁽⁴⁾로 구분되어 있다.

섬머린은 아직도 서쪽의 많은 부분이 미개발로 남아 있지만 개발된 부분은 부동산 개발의 좋은 선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상⁽⁵⁾을 받았다.

- (1)하워드 휴지스 : Howard Hughes, Jr./1905~1976년 미국남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태어난 실업가·영화제작자·비행가로 세계적인 부호(富豪)의 한 사람이다.
- (2)HHC : Howard Hughes Corporation. 하워드 휴지스가 설립한 부동산 개발 및 관리회사로 본사는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하고 있다. 이 회사는 후에 Routh Company에 매각되었고, 오늘날에는 General Grow Properties Inc. 그룹(시카고시에 본사를 둔 미국의 유명한 부동산투자기업으로 몰, 쇼퍼센터 Outlet mall, 신도시 등의 개발 및 판매 등을 주요 업종으로 하고 있다.
- (3)토지이용 : 주거, 상업, 레크리에이션, 교육, 의학, 문화 및 오픈스페이스 등
- (4)5개 지구 : Summerlin North, Summerlin South, Summerlin West, Sun City, Siena
- (5)상 : 2008년에 받은 American Trails Development Award를 비롯하여 1993년부터 2008년까지 많은 상을 받았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Unincorporated Community of Summerlin

섬머린 시가지전경

섬머린 중심 상업지 전경



건축과 도시철학_ 2부

>> 현대건축의 가치관 변화와 혼돈

1부 : 창조도시에서의 건축의 가치 - 2012년 1월호

건축은 '시대의 거울'이다. 건축은 너무나 오랜 역사를 가진 인간의 활동으로 인류의 수많은 문화를 담고 있다. 고대로부터 현대 그리고 인류의 미래까지도 우리 인간과 떼어내려 해도 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동반자로서 건축은 다양한 인간의 생활상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 경제 등을 고려한다면 건축이 다양하게 존재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다.



손승광 교수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ECO 도시건축 연구소장
sskshon@dream.wiz.com

2012년 1월호부터 '건축과 도시철학'이라는 지면을 개설하여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손승광 교수의 원고를 4회 기획하였으며 2012년 4월호까지 아래와 같은 주제로 연재 된다.

3부 : 도시의 공공성과 건축 - 2012년 3월호

4부 : 시민참여로서 창조도시의 건축 - 2012년 4월호

건축이 복잡적이고 대형화될수록 전문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인력이 팀을 이루어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야만 한다. 전문기술자 집단은 당연히 기술인력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훈련이 되어있더라도 변화하는 속도에 부응하는 비전과 전략수립을 항상 검토하여야 하겠다.

건축은 다양성이 기본이다

절대군주시대에 건축은 절대군주가 생각하는 의도와 목적이 건축의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국가적이고 공공건축 이외에도 모든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생활의 내용을 담아주는 시대의 건축은 다양한 요구가 당연하다.

건축은 인간의 삶과 불가피한 존재이고 그 오랜 인류의 역사속에 존재하여 왔으면서도 (가장 바람직한 건축은 이런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말해지는 것은 없다. 본질적으로 건축은 독창적이고 다양한 미학이 인정되는 것이다. 오히려 일관되게 말해질 때에 대량생산과 획일화의 문제로 문제를 양산하기도 하였다.

건축은 건축의 주인공(主人格)인 건축주가 주문하여 설계되고 건설된다. 개인건축은 개인 소유자가, 공공건축은 공공의 성격에 따라 추진된다. 대개의 경우 건축물의 내부는 사용목적적이 있어서 사용프로그램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은 개인의 소유물이라 허더러도 외부에 드러나는 부분은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공공의 입장에서 공동의 선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더구나 불특정다수가 살아가는 사무소건축, 공공건축, 도시환경 등 많은 건축 활동은 인류의 문화로서 공동자원이 되기도 한다.

건축은 누구나가 살아가는 환경이고 살아보았던 경험이 있어서 일상적인 환경으로 인식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생각도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고 건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입장에 서게 되면 누구나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누구나 살아가고 느끼고 하여왔던 경험은 반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최적의 상황을 얻어가는 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다양성과 동상이몽

건축에 대한 시각이 어떤 가에 따라 동일한 조건의 장소, 건축물에 대한 사람들의 선택은 다양하고,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동상이몽>이다. 창조적인 입장에서 <동상이몽>은 다양성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에 동상이몽은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과 경우의 수는 많아진다. 3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데, 1가지만을 생각하고 해결안을 마련하면 2가지 관점에서 불합리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마치 여러 사람들이 한 마리의 코끼리를 어둠속에서 부분적으로만 쳐다보는 것처럼 부위의 특성에 따라 '내가 보는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각각 정의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전문가집단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격변기의 현상과 가치관의 혼란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격변기를 거쳐 왔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경제기준으로 보면 6.25전쟁 후 200달러에서 현재 20,000달러를 넘어서는 100배의 경제성장을 하여 오는 변혁의 시대를 우리는 동시대적으로 살고 있다.

이러한 변혁의 시대를 거쳐 오는 동안 시대적으로 당연한 문제해결방식이 급진적으로 변해 왔기 때문에 더욱이 가치관의 혼란만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 방식도 혼재하고 있다.

가치관의 혼란은 건축분야에서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우리나라의 급성장과 개발시대를 거쳐 오는 동안 인구성장과 도시화로 많은 건축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개발과 건설이 곧 경제활동이라는 등식의 관계는 끝나고, 개발이 되었지만 수요자의 변화에 따른 건축시장의 체현현상은 건축의 시장과 메커니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민간건축만이 아니라 공공건축에서도 도시계획과 개발에서도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진다.

가치관의 혼란과 문제해결 시스템

개발시대에 개발논리에 익숙한 개발업자, 개발정책을 수립하는 행정관료, 기술자 등 개발계획에 관련되어온 인력들의 사회변화



국립아시아문화전당(모든 건축물이 지하공간으로 구성되고 옥상부는 북지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에 대한 대응전략과 가치관은 충분히 준비되었는가? 건축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면서 어디까지가 건축이고 어디부터가 도시인가? 라는 경계와 영역구분이 어려운 시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조직은 복잡하고 다양해졌는데 의사결정은 적절한가? 등의 문제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코끼리 다리만지기의식의 부분적인 혹은 편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 명 모아놓고 코끼리의 실체를 그림 맞추기처럼 잘 알아낼 수 있을까?

건축은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기술적인 문제의 복잡성이 더해진다. 그 기술적인 문제는 이용자 및 이용자 그룹의 활동을 다루는 프로그램, 환경적인 특성과 안전기술, 미학적인 공간연출 등이 복합적이다.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교통, 토지이용 등의 도시시스템, 사용자의 경제능력과 사회문제 등 국가적인 복지문제까지 종합적이다.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대형프로젝트를 코끼리 그림 맞추기 하는 경우는 없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가치관의 혼란과 사회적 비용

<아시아문화전당>의 상징성은 지하공간연출로 충분한가, 아니면 시각적인 상징조형물이 있어야만 하는가?, <백운동고도로> 철거인가, 지속적인 활용인가? <전남도청별관> 철거인가, 보존활용인가? <광주시민회관> 철거인가, 리모델링 활용인가? <광주도시개발> 신개발인가, 도시재생인가? 광주도심재생으로 <중창로는 아케이드로 쓰워야하는가?>, <대강사업>과 <국토개발과 KTX사업> 등 이러한 논의들에 대한 시대변화와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방향은 어떤 것인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들은 때때로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여, 무엇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가치관의 정립이 절실했던 중요한 사안들이었다.

가치관의 혼란에 따라 잘못된 결정은 국가적인 자원과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들에게 직접 돌아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의사소통과 행정의 책임

건축이 이렇게 복잡적이고 대형화될수록 전문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인력이 팀을 이루어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야만 한다. 전문기술자 집단은 당연히 기술인력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훈련이 되어있더라도 변화하는 속도에 부응하는 비전과 전략수립을 항상 검토하여야 하겠다.

더구나 전문적인 인적자원이 아닌 행정조직, 비정부조직(NPO)에서 급변하는 변화에 부응하는 문제는 시대문제, 사회문제, 인간의 가치문제의 변화를 바탕으로 유연하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시민을 팔아서 목소리 높여서 일방통행을 하는 일은 없는지 살펴야겠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전남도청별관 (철거/ 보존)논쟁



광주시민회관 리모델링(당선안)

가칭)광주학생임해수련원 신축공사 건축설계공모는 해양 체험 수련활동과 극기, 모험활동을 병행하는 광주학생임해수련원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청정 다도해와 주변 자연환경 등 신축 예정부지의 주변 특성과 여건 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양질의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무작위로 직접 추천하여 구성하였다.

심사위원 명단 : 경남대학교 이광태 교수, 제주대학교 김태일 교수, 강원대학교 김진원 교수, 전남대학교 고성석 교수, 단국대학교 정재욱 교수, 명지대학교 장성준 교수, 동의대학교 박종일 교수, 한라대학교 서성연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종혁 교수, 금오공과대학교 신현의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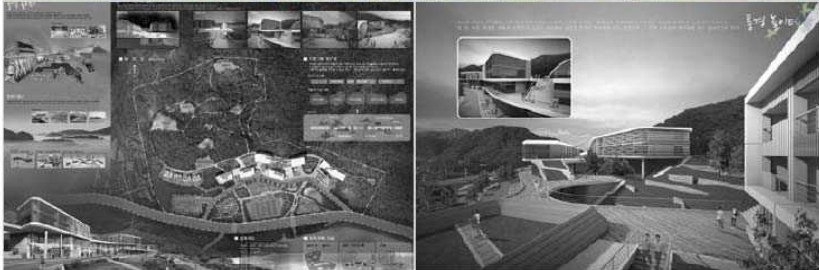
- 당선작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_양병범 건축사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_박동준 건축사
- 우수작 (주)발해 건축사사무소_이주경 건축사
- 가작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_심상봉 건축사

광주학생임해수련원 신축공사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_양병범 건축사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_박동준 건축사

대지위치 :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발표리 산 10번지 일원
 대지면적 : 102,348.00㎡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도로현황 : 남측 14M도로
 연 면적 : 11,799.74㎡
 건축면적 : 6,938.82㎡
 건 폐율 : 6.78%
 용 적율 : 10.70%
 층 수 : 지하 1층, 지상 4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주 용 도 : 자연권 수련시설
 주요 마감 : 알루미늄시트 패널, 목재루버



우수작 (주)발해 건축사사무소_이주경 건축사

건축면적 : 6,364.31㎡ 연 면적 : 11,694.84㎡
 건 폐율 : 6.22% 용 적율 : 11.43%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철골직접원속소동, 강당동)
 층 수 : 지상 4층
 외부마감 : 점토벽돌, AL SHEET, 외단열 시스템, 칼라알루미늄복합패널, 로이복층유리



가작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_심상봉 건축사

건축면적 : 6,124.55㎡ 연 면적 : 11,650.76㎡
 건 폐율 : 14.96% 용 적율 : 23.03%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일부 철골조
 층 수 : 지하 1층, 지상 4층
 외부마감 : 화강석, 노출콘크리트, 티타늄아연판, 로이복층유리



사그라지지 않는 열정을 가진 건축사 _ 양동협 건축사

양동협(梁東俠) 건축사는 한국건축가협회 광주회장을 역임(06년~08)하고 광주지역 건축 관련 봉사조직 중 하나인 '장애 없는 세상만들기' 회장직을 수행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 이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행한 대표적인 건축사이다. 또한 광주 근·현대 건축을 대표하는 건축인 중 한 사람인故 김태만 선생 아래에서 수학하기도 하였다. 올해로 40여년을 맞이하는 그의 건축인생을 알아보기 위해 광주 서구 차평동에 위치한 (주)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사옥을 방문하였다.

故 김태만 건축사와의 인연으로 시작된 건축의 길

양동협 건축사는 1960대 모두가 그러했듯 가난한 어린 시절을 겪으며 자랐다. 먹고 사는 것조차 해결하기 힘든 그때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부모님은 광주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을 허락하셨고 지금도 그 점에 대해 존경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 고등학교 진학할 때는 인문계를 생각했으나 건설사에 재직 중인 형님의 권유로 실업계를 선택했고 고등학교 졸업 즈음 김태만 건축사의 신건축연구소에 실습을 나가게 되면서 그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김태만 선생님 밑에서 실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배움에 대한 갈증으로 대학교 진학을 욕심내다 시작했습니다. 당시 건축과는 야간이 없었기에 주간으로 학교를 다녔어야 했고 수업이 끝난 후 저녁시간에 근무를 해야 하는 이상한 형태의 근무를 시작했으며 누가 봐도 고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직업이었을 것인데도 김태만 선생님께서는 불평 한마디 안하셨습니다. 언젠가 학비를 보태 주시며 격려해 주신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은혜로 군대 제대 후 김태만 선생님을 다시 모시기 되었고 1990년 퇴임하실 때까지 20여년 간 인생의 스승이자, 건축의 스승으로 함께하는 행운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작업하는 건축물은 '자연의 일부'이자 '도시의 한 구성인자'

그는 지금까지 설계사무소를 운영해오면서 나름대로 정해 놓은 원칙을 고수하고자 노력한다고 한다.

"우리가 작업하는 건축물은 자연의 일부이자 도시의 한 구성인자이므로 그 자체로써 크기는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가져야 함은 물론 사회에 대해서는 유익하고 그 건축물에 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설계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물에는 디자인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설계를 수임받았으면 작은 규모의 건축물에서부터 부수되는 주위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이라는 건축 혼을 불어넣는 작업이 곧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과 의무이기도 하지요."

종이 위에 지은 집들이 이 도시의 얼굴로 존재하게 하는 흔적을 남길 때 건축사로서 자랑스러워

"주택, 공장, 회사 등을 건축하겠다는 분들 모두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찬 분들입니다. 그 희망과 기쁨을 위해 설계한다는 것은 참으로 신나고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종이 위에 그린 집들이 자랑스럽게 지어져 이 도시의 얼굴로 존재하게 하는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건축사라는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건축사(가)' 라고 불리기를 원하셨던 故 김태만 선생을 가장 존경해

그는 인생 황금기 20여 년 간을 함께한 故 김태만 선생을 마음속 깊이 그리워하며 존경하고 있다고 한다. 김태만 선생은 작고하기 전 미리 준비 해 놓으신 비문에 '건축가 김태만'으로 새기게 할 정도로 건축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

"김태만 선생님이 우리 지역에서 타의 모범적인 활동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대표적 사례가 1990년 4월 30일 광주건축사회에서 선생님의 건축사 면허 반납 퇴임식을 직접 주최한 사례입니다. 퇴임식에 수많은 후배 건축사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였고 선생님의

공적을 기리며 건장을 기원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우리 분야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건축사가 되고 나면 책은 멀어지기 마련인 지금 우리의 현실에 부끄러움이 앞서기만 합니다."

김태만 선생과 함께했던 작품에 대한 회상

"광주 동구 금남로 중앙교회를 설계 할 때의 일입니다. 금남로변 벽면을 무창으로 설계한 것 때문에 교회측 건축위원회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넓은 면에 창이 없이는 입면이 말이 되느냐'는 교회측 항의에 김태만 선생님께서는 '우선 방향이 북향이고, 종교시설로서 금남로 대로변의 소음을 막아야 하니 개구부는 없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서로간의 합의가 되지 않자 건축위원회측은 결국 서울의 유명 설계사무소 몇 곳으로 출장까지 가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다섯 곳의 사무소 중 두 곳은 '창을 내야하지 않겠느냐'였고, 나머지 세 곳은 '그렇게 설계될 수도 있겠다'였습니다. 그에 따라 건축위원회측도 김태만 선생님의 의견에 수긍하였고, 결국 무창벽면으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인연으로 시작된 '장애없는 세상만들기' 봉사활동

양동협 건축사는 바쁜 설계활동에도 '장애없는 세상만들기'라는 봉사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그는 건축사로서 '봉사'라는 사회적 책무에 동참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고 했다.

"사실 그동안 봉사할 여유 없이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쓰다보니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봉사활동은 이순미 건축사를 만나면서 '장애없는 세상만들기'를 통해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어렵고 힘이 들었지만 광주시에서 적극 도와주고 주위에서도 우리의 좋은 뜻을 이해하고 동조하여 현재는 별 어려움 없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애없는 세상만들기: 우리 주변의 장애가 되는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여 불편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장애까지 없애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7년부터 시작된 봉사사업."

협회 일에 건축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기도

해가 지날수록 건축사 회원들이 협회 일에 무관심한 세태에 대해 많은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우리의 앞길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 가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회가 힘을 가져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회원 모두 협회가 하는 일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일부 회원들의 무관심한 세태로 인해 낙담해지는 협회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만 들 뿐입니다. 우리의 단체가 힘이 없이 낙담해지면 그래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것임을 많은 회원 분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동협 건축사는 건축 인생 40여년 간 하나하나의 작품마다, 그리고 행동마다 자신이 가진 열정을 다해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건축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 남은 건축인생 또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한다. 벌써부터 (주)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를 젊은 후배들에게 넘겨주고자 조금씩 은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양동협 건축사!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사그라지지 않을 열정을 보았기에 앞으로 계속될 '건축사 양동협'의 건축인생이 기대가 된다.

취재 : 서재형 건축사기자 archiseo@lycos.co.kr
정리 : 곽승국 전담기자 : gjkita@empal.com



광주 / (주)한길종합건축사사무소 양동협 건축사



방산문화예술회관 신공공사(2000)



광주교육대학교 도서관 증축 공사(2000)



조선대학교 국제관 신공공사(2010)

광고 및
공동신청

건축문화

사랑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16면 전면광고 : 1,500,000원
- 16면외전면광고 : 1,200,000원
- 하 단 광고 : 500,000원
- 하단1/2광고 : 300,000원
- 하단1/3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 입금 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 계좌번호 : 신용협동조합 131-009-471898



Tel. 062)521-0025~6 Fax.062)528-0026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3월부터 개강

— 3월부터 4년제 농생명과학과, 한옥·목조건축기술인력 과정 운영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 소재한 한국폴리텍V 대학 고창캠퍼스가 전북대학교로 무상이전을 완료하고 3월부터 전북대 고창캠퍼스로 정식 운영된다.

고창캠퍼스는 약 90억 원 상당의 부지 및 건물로 지난해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서 고창군으로 무상 이전하고, 고창군은 다시 전북대로 무상이전을 완료하는 등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쳤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건설기능인력 양성 호남권 거점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전북대 고창캠퍼스는 현재 국비 63억 원을 투입해 시설 개보수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한옥 등 목조건축 기술 인력양성과 4년제 농생명과학과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 개교 준비에 한창이다.

전북대는 국토해양부 지원으로 지난해 7월 '한옥건축기술종합센터'를 개소하면서 6개월 과정으로 한옥설계 인력을 육성해 오고 있으며, 40명 모집에 외국인까지 206명이 수강을 신청했고, 정원을 47명으로 늘려 진행 된 바 있다.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두현정 학생기자 dhj-hjshghk@hanmail.net

전북대학교, 한옥인재양성 과정 제1기 수료식 가져

— 한옥공모전 수상작품 전시와 함께 교육생 작품인 '육모정' 준공식도 가져



지난 2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전북대학교 진수당 2층 바오로홀에서 한옥설계전문인력양성 과정 제 1기 교육생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전북대학교 한옥건축기술 종합센터가 주최하였으며 약 6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수료식에 앞서 국토해양부 유병권 도시정책관의 국가한옥정책에 관한 특별강연이 있었는데 한옥의 활성화 위한 新한옥플랜과 법적안화규정 그리고 한옥전문인력육성 등을 통해 한옥의 대중화·산업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제도·사업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을단위에서 한옥육성을 지원하는 등 한옥 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전북대학교에서 한옥을 정식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노력은 작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지난해 한옥건축기술종합센터(센터장 남해경 교수)를 개소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1개 대학교를 선정하여 한옥설계교육을 실시하는 한옥설계전문인력양성사업에 지방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현재 건축사와 건축전문인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여 한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한옥설계전문인력양성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5: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전국 각지의 건축전문기들로 이들은 6개월여의 과정으로 한옥설계는 물론, 한옥시공교육을 받았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한옥공모전 수상작품 전시와 시상 마지막으로 교육생들의 작품인 '육모정'의 준공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교육생들은 육모정 앞에서 수료증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며 지난 시간을 추억하였다.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두현정 학생기자 dhj-hjshghk@hanmail.net

· 특이기고 ·

하루 10분의 기적

두현정 학생기자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하루 10분 운동', '하침 10분', '10분 독서' 등 일상 속에서 하루에 단 10분이라는 사뭇 제한적인 문구가 많이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10분이란 정확히 얼마의 시간일까? 10분은 '잠깐 휴식을 취할 시간', '커피 한잔 할 시간'이라 하는가 하면, '몸에 비누칠 할 시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하루 24시간 중 내가 아무렇게나 흘러보낸 이 10분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도 한다.

쉬는 시간 10분을 이용하여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학생부터, 자투리 시간 10분을 이용한 공부로 자격증을 수십개씩 취득한 사람,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 운동10분으로 연간 산업재해발생률이 50% 이상 감소한 회사에 이르기까지 10분은 짧지 않은 긴 시간임에 분명하다.

하루 10분은 한 달이면 약 300분, 1년이면 3,650분이 된다. 짧게만 느껴졌던 10분이 쌓이면 실로 엄청난 양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새해에 첫날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이겨트지 올해의 목표와 계획들을 세워 놓았지만 여전히 지난해와 같은 자리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만 같다. 많은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바쁜 하루 동안 진정 하고 싶은 일에는 손을 말 엄두조차 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듯 하루 10분의 기적을 믿어보자. 하루에 단 10분 동안이라도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글을 쓰는 등 긍정적인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혹은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10분 동안 크게 웃어보자. 웃으면 복이 온다지 않는가.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김수인·임민택 교수 정년퇴임

— 오는 2월 11일 조선대학교내 솔마루에서 퇴임식 열어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김수인·임민택 교수가 오는 2월 11일 조선대학교내 솔마루에서 정년퇴임식을 가진다.

김수인 교수의 그간 이력을 살펴보면 1978년 교수로 임용된 후 34년간 재직하면서 대한건축학회 지회 연합회 회장, 건축가협회 광주지회 회장,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100여 편의 학술 논문과 문화부장관상, 대한건축학회 공로상/학술상, 한국건축기협회 공로상,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공로상, 광주광역시 공로상, 광주예술문화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임민택 교수는 1979년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에 임용된 후 33여년 동안 산업대학원장, 대한건축학회 저자상, 한국생태환경건축대상, 대한건축학회 학술상, 한국주거학회 학술상,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공로상 등을 받았다.

또한 일본 후쿠이대학, 동경공업대학, 동경대학,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객원연구원으로 지냈다. 후학들을 위해 200여편의 학술 논문과 20여권의 전공저서를 저술하였다.

한편 김수인, 임민택 교수는 그간의 업적과 공로를 기려 정년퇴임과 함께 건축학부 명예교수로 임명된다.

박종호 건축사기자 k21024@chol.com

순천시, 창의적이고 예술성을 겸비한 도시미관 조성 박차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설물 개선사업, 지주시설물 정비 등



전라남도 순천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이미지에 맞는 주변 환경과 조화되며 창의적이고 예술성을 겸비한 도시미관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시민로, 낙안읍성 순천관길, 여수로, 장천3길, 팔마로 등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는 가로 경관을 저해하는 불법 간판, 현수막, 벽보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시민 참여를 통한 선진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간판을 교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도심 주요 진입로, 정원박람회장 주변,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가로경관과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시설물에 대해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선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에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도시 환경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유발하고 있는 각종 지주 시설물에 대해 2013년까지 주요 간선도로 31개 교차로에 286개의 지주를 철거하고 통합지주 108개를 설치하는 등 도로 시설물 및 표지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획일적인 건축 형태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변과 조화되는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한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광주·전남·전북지역 주요 대학교·대학 학위 수여식 일정

일 자	대 학 명
2월 10일 금요일	전남도립대학, 전주지전대학
2월 11일 토요일	광양보건대학, 동이인재대학
2월 16일 목요일	전남과학대학, 청암대학
2월 17일 금요일	전주대학교, 고령리대학, 군장대학, 성화대학
2월 20일 월요일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초당대학교
2월 22일 수요일	광주대학교, 동신대학교, 목포대학교, 전북대학교
2월 23일 목요일	호남대학교, 호원대학교
2월 24일 금요일	우석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 상기 일정은 대학시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독자의견

※본지 2012년 1월호 (26호) 12면-NEWS 지면에 '광주시 남구청 리모델링 시공업체 최종 선정'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이 아래와 같이 있어 답변해 드립니다.(본지 '건축문화사랑'은 독자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견 : 해당 내용 중 당선업체 조감도만 게재한 것보다 독자들이 작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심사대상 업체들의 조감도의 모두 게재하였으면 합니다.
- 답변 : 남구청 리모델링 시공업체 선정은 턴키로 진행된 부분이므로 현상설계공모되는 조감도 다르게 설계의 작품성뿐만 아니라, 경제성, 시공성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성과 시공성 등이 더 중요하게 취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지에서는 그동안 턴키사업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보도하는 수준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독자의견을 반영하여 향후부터는 턴키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취재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문화사랑 편집위원)

대구건축사회, 김화자 건축사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당선

– 지난 1월 30일에는 전국 시·도회의의장협의회에서 제 12대 부회장으로 선출되기도



대구광역시건축사회 김화자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세명건축)가 지난 1월 10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202회 임시회에서 제6대 전반기 의장에 선출되었다.

이날 보궐선거에서 김화자 의원중구 제1선거구·한나라당은 총 유효표 31표 중 18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이와 함께 1월 30일에는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전국 시·도회의의장협의회 제12대 부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김화자 의원은 대한건축사협회 이사이자 여성건축사위원장, 대구광역시건축사회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의회 34대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4대 전반기 부의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지회 박익수 회장 취임

– 지난 1월 31일 정기총회 개최하고 회장에 호남대 박익수 교수 선임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지회는 지난 1월 31일 광주 동구 금수장관호텔에서 201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였다.

지회장에 박익수 교수(호남대학교 건축학과)를 선임하고 수석부회장에 정광민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서로), 부회장에 남승진 교수(동아인재대학교 건축과), 감사에 이순미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미가온), 총무에 김갑동 건축사(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기림 건축을 선임하였다.

이들 임원진은 앞으로 2014년 1월까지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지회를 이끌게 된다.

영화 '건축학개론'의 불편한 진실 : 건축가? 건축사!

관공극 전담 기자 gjk@empal.com



요즘 대서는 해품달(MBC방송국 드라마 : 해를 품은 달)이다. 특히 그 드라마는 탄탄한 스토리와 함께 아름다운 주연들의 활약에 매혹이다. 자체 최고 시청률을 갱신하며 안방극장을 휘어잡고 있다.

해품달 여주인공 허연역을 맡은 한기민 씨는 이번 드라마로 대한민국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이에게 사랑과 찬양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한기민 씨의 인기로 힘입어 오는 3월 개봉을 앞둔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가 벌써부터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물론 한기민 씨를 비롯한 인기 배우이자 여배우인 엄태웅 씨 인기까지 미스메이커의 수지 앞 젊은 연가파 배우 이재훈 씨 등 탄탄한 출연진으로 '대박'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영화사 제작 : 명필름, 배급사 : 롯데엔터테인먼트에서 각종 언론사를 비롯해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제공한 시놉시스 내용은 대강 이렇다.

"건축가 승민(엄태웅) 앞에 15년 만에 나타나 집을 지어달라는 서연(한기민), 함께 집을 완성해가는 동안 어찌던 사랑이었는지 모를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 새로운 감정을 쌓아가는 이야기"

'건축가?...?' 어떤 사이트, 어떤 언론 기사를 보더라도 영화 홍보에 '건축가'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2011년 5월 30일 개장되어 공포된 건축사법 제12조(유시명칭의 사용금지-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약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건축가'가 아닌 '건축사(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라고 올바르게 써야한다는 말이다.

사실 '건축가'라는 명칭은 일찍이 대중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널리 인식되어져 당장의 명칭 전환은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의 인식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매스미디어(TV, 신문, 라디오, 잡지, 영화, 광고, 인터넷 등) 업체들의 제재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를 생각하며 대한건축사협회 차원의 대응을 기대해 본다.

광주시 인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한다

– 마스터플랜 수립 위해 T/F팀 구성한 후 총괄계획가 지명키로 해

광주광역시시는 그동안 도시의 공공 공간에서 시민들이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고 광주만의 매력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광주폴리 사업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사업, 경관 취역시 개선사업, 사회약자 계층 시설물 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도시공간 전반에 대한 종합적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도시공간의 합리적인 개발과 보전 등 광주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시는 이번 '인본도시 디자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된다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시디자인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청 도시디자인과 내에 전문기와 공무원 시민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한 후 총괄계획가를 지명하는 계획이다.

광주시, 제2컨벤션센터 건축설계 공모작 접수

– 오는 2월 27일까지 공모작 접수



광주시가 '제2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지난 1월 25일 제2컨벤션센터 건축설계 공모를 시작하였다고 밝히며 27일 현장설명회는 열고 오는 2월 27일까지 공모작을 접수받겠다고 밝혔다.

제2컨벤션센터는 광주시 서구 치평동 감대중컨벤션센터 부지 내 5만3000여㎡에 전체면적 1만80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제2컨벤션센터는 2800석 이상의 다목적 홀, 중·소회의실 등을 갖추게 된다.

광주시는 애당초 5·18 자유공원에 제2컨벤션센터를 건립하려 했지만 5·18단체의 반발, 부지의 적절성 그리고 예산절감 등을 고려해 건립장소를 변경하였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한국농어촌공사 신청사, 건축허가 완료

– 2월 3일 건축허가 완료되어 다음달 9일부터 착공

전남 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신청사에 대한 건축허가가 지난 2월 3일 완료되어 다음달 3월 9일 공사가 시작된다.

이전 인원 793명의 한국농어촌공사 신청사는 11만 5466㎡ 부지에 지하 1층·지상 18층(연면적 4만 1379㎡) 규모로 건립된다.

나주 금천·산포면 일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5개 기관 중 우정사업본부센터,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전파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11개 기관의 신청사 건축허가가 끝났다.

가장 먼저 이전을 결정한 우정사업본부센터 신청사의 경우 올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3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한전과 전력거래소 신청사 건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농어촌공사에 이어 한전KDN, 한전KPS 등도 상반기 청사 건립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혁신도시 조성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발전연구원장에 이건설 기획경영실장 선임

– 지난 1월 25일 제73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제12대 원장으로 선임



전남발전연구원은 2015년 1월 24일까지 3년 임기의 신임원장에 이건설 기획경영실장을 선임하였다.

지난 1월 25일 제73차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 전남발전연구원은 이건설 신임 원장 선임 이유에 대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것을 비롯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 호남광역권발전계획 등 지역발전 위한 프로젝트 연구 및 시책 개발에 앞장선 공을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이건설 원장은 1992년 3월 연구원 출범 당시 연구원으로 입사해 선임 연구원 등을 거쳐 기획업무와 연구, 조직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연구실장을 지냈으며 국가균형발전위 전문위원과 광주·전남 혁신협의회 사무국장, 2012 여수비평회 집행위원, 전남경영자협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제14회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 미술전, 성황리 마무리

– 북구청 갤러리에서 열린 20일간 시민 5,000여명 다녀가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 미술전이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광주 북구청 1층 갤러리에서 개최되어 시민 5,000여명이 다녀가는 등 성황리에 전시회가 마무리되었다.

미술전 오프닝이 열린 19일에는 송광운 북구청장을 비롯한 김재균 국회의원(북구 을)과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송광운 북구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북구청에서 14번째 전시회를 통해 '북구청에서 14번째 전시회'가 열려 이곳을 찾은 시민들에게 예술적 기쁨을 선사해 주신 것에 대해 광주건축사회 미술동호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으며 김재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전시회는 종합예술인 건축사들의 예술적 면모가 발휘되는 자리이자 시민들에게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면모를 어김없이 보여주는 자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재균 의원은 오프닝 이후 진행된 만찬에 참석하여 "광주가 건축문화중심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광주비엔날레와 맥을 같이하는 건축비엔날레의 개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광주시, 환경선도 도시 육성 설명회 개최

– 세계 광엑스포 주제관에서 저탄소 녹색경제 구현 방안 등 논의

광주시는 지난 2월 9일 서구 치평동 세계 광엑스포 주제관에서 녹색창조도시 광주건설을 위한 '환경선도 도시 육성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광주시 강운대 시장과 신광조 환경생태국장, 이옥현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전문가, 관련 단체,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신광조 국장 및 이옥현 국장의 시책설명에 이어 서울대학교 김규곤 명예교수의 '저탄소 녹색경제 구현방안' 주제발표와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되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환경선도 도시 육성 설명회 개최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녹색창조도시 광주 건설을 위한 시책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밝혔다.

광주건축사회 제25회 정기총회 2월 29일 (수) 개최

- 광주 동구 지산동 신양파크호텔에서 오전 10시 진행 예정



광주건축사회 제25회 정기총회가 오는 2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지산동 신양파크호텔에서 개최된다.

금번 정기총회는 개회를 시작으로 성원보고, 국민의례, 건축사현장 낭독, 축사, 표창해 수여, 신입회원 소개, 전화 회의록 승인, 주요업무보고, 감사보고, 부의안건, 기타사항 폐회 순으로 진행된다.

부의안건으로는 '2011년도 수지결산의 건'과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임원 및 대의원 개

선의 건'이 상정되며, 특히 이번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에서는 임기 2년의 광주건축사회 감사를 선출하는 내용이 담겨 많은 회원들이 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당해 임기만료 되는 임원들과 건축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 대내외 인사 10여 명에게 표창패 및 감사패가 수여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 총회는 광주건축사회 총회 하루 앞날인 2월 28일 화요일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일본 JIA MAGAZINE, 광주건축사회와 후쿠오카회 교류내용 실려

- 2011년 12월호에 후쿠오카회, 교류차 광주방한 내용 게재



일본 건축가협회에서 발간하는 'JIA MAGAZINE' 2011년 12월호에 지난 11월 후쿠오카회가 교류차 광주를 방문한 내용이 게재되었다.

주된 내용은 후쿠오카회가 광주에 방문하여 11월 2일부터 진행된 제8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를 참관한 내용과 광주폴리 소개, 그간 광주건축사회와의 교류추진 내용 등이 실렸다.

광주건축사회와 일본 JIA 후쿠오카회는 1998년부터 양국의 건축문화발전을 도모코자 교류협약을 맺고 매년 상호 교환 방문하는 형식으로 국제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도해양부 공고 제2012-66호

2012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공고

「건축사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일
국토해양부 장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가. 건축사예비시험	○ 건축사법(법령 제10719호)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 건축사법(법령 제10756호, 2011.5.30) 부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3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나.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 건축사법 부칙(제3242호, 1980.4.1) 제2조(2) 건축사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건축사법 시행령 부칙(제9876호, 1980.5.26) 제2조(2) 건축사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1. 응시자격	※ 주의사항 ① 대학졸업예정자는 시험일을 기하여 대학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하며, 최종학년 1학기를 미치고 유학한 자 및 학생인정제에 의한 건축분야 학위 취득자도 포함된다. ②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시험일을 기하여 대학원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하며, 최종학년 1학기를 마치고 유학한 자도 포함된다. ③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 응시자격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로 확인된다.
2. 시험과목	가. 건축사예비시험 :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공학, 건축법규 (객관식 선택형) 나.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 건축계획, 건축구조 (객관식 선택형)
3. 시험일자 시험장소	가. 시험일자 : 2012년 5월 13일(일) 나. 시험시간 및 장소 : 2012년 4월 19일(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협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참고
4. 응시원서 접수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합니다.) 가. 기간 : 2012.2.27 ~ 3.5 (시각일 09:00부터, 평일(토·일포함) 00:00~24:00, 마감일 18:00까지) 나. 방법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응시원서접수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됩니다. 다. 기타 : 응시수수료(3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결제처리비용)이 소요됩니다.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은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 건축사협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5. 합격예정자 발표 및 제출서류	가. 합격예정자 발표 : 2012년 6월 1일(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협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참고 예정 나.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 2012. 6. 7 ~ 6. 11(09:00~18:00, 토·일 제외) ※ 제출서류 및 합격인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621)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과(02-3415-68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익산지역건축사회, 익산문화재단에 문화기금 기탁

- 지난 1월 10일 현주역 익산지역건축사회장, 이만수 익산 시장만나 500만원 기탁



전라북도 익산지역건축사회가 익산문화재단을 위해 익산문화재단에 문화기금을 기탁하였다.

지난 1월 10일 익산지역건축사회 현주역 회장은 익산시 시장실에서 이만수 시장을 만나 익산문화재단을 위해 새달라며 문화기금 500만원을 기탁하였다.

이 자리에서 현주역 회장은 "익산건축사회 회원들의 뜻을 모아, 문화예술사업 활성화를 통한 문화도시 익산 건설을 위해 익산문화재단에 문화기금을 기탁하게 되었다"고 말

하였다.

전라북도 전주시,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 본격화한다

- 사업 총괄 관리업체로 (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로 선정하고 협약 체결



전북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일대 부지 12만 2900㎡를 절반 비율로 컨벤션센터와 호텔로 나눠 분리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 12월 건설사업관리자 입찰을 통해 (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하였으며 1월 31일에는 최종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에서 (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는 민간사업자가 선정돼 본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용역업체에서 타당성조사와 입찰 안에서 작성, 업체 선정 등에 선 투자하는 등 사업 시행 전 단계에서 대부

분 참여하게 된다.

이후 본 계약이 체결되면 민간사업자가 용역비를 부담하고 민간사업자 유지가 실패할 경우 선 투자비를 포기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각·컨벤션 및 호텔 건립사업과 함께 오는 3월에 민간사업자 및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으로 각 중 행정절차 이행단계를 거친 뒤 2013년 3월, 사업을 착공해 2015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위한 노력 조금씩 빛을 보다

- 광주 광산구 지역 위법 행위, 큰 폭으로 줄어들어

광주 지역에서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들이 조금씩 빛을 보고 있다.

지난 1월 26일 광주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하남 2차구에 신축된 건물 54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9곳으로 위법 발생률이 17%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광산구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꾸준히 진행한 결과이자 광주건축사회의 적극적인 위법행위 근절 정보 캠페인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시공자와 건축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고, 이 지역 건축사사무소 측에서도 "처음부터 규정을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이롭다"는 조언을 건축주에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힘입어 광주건축사회에서는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은 "앞으로도 불법 다기구 주택 지정 노력을 꾸준히 펼칠 것이며 건축문화지점감시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광주시와 함께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북 건축계 동정

- *임회**
 - 임항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모던건축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590-4
 - 안 철 건축사 / 고은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46-4
 - 박중수 건축사 / 테마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695-1 하가빌딩4층
 - 정광수 건축사 / 사원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4-43
 - 전영배 건축사 / 대보 건축사사무소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198-8번지 1층
 - 박중하 건축사 / 지오드 건축사사무소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226-5 10호
 - 허춘식 건축사 / 무주 건축사사무소 / (월요일 확인)
- *결혼**
 - 김성수 건축사 / 고려 건축사사무소 / 장녀 / 2월 11일 (토)
- *부고**
 - 이재현 건축사 / 상상디자인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1월 29일 (일)
- *전라북도 건축 관련 인사이동**
 - 김경선 전라북도 토지주택과장 → 순창군 부군수
 - 이승복 행정지원관실 청사관리담당 → 건설교통국 토지주택과(장승진)
 - 권양주 건설교통국 토지주택과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 김양진 건설교통국 토지주택과 → 행정지원관실 청사관리담당(승진)
 - 최종엽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 건설교통국 토지주택과(권관지)인담당
 - 하애은 건설교통국 토지주택과 (승진)
- *변경(상호 변경)**
 - 이원형 건축사 / 종합건축사사무소 참건축 → (유형중환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592-14번지 3층

▶▶▶ 광주 건축계 동정

***전입**
- 김정만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태건 / 광주 서구 농성동 321-3번지 (304호) 전남 → 광주

***폐업**
- 박영희 건축사 / 무등 건축사사무소

***변경(소재지 변경)**
- 김승준 건축사 / 세오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오치동 1034-30
- 김동성 건축사 / 한림 건축사사무소 / 광주 남구 월산동 162-4
- 김철홍 건축사 / 일석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농성동 648-5 (3층)
- 김한일 건축사 / 신라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농성동 648-5 (3층)
- 최수일 건축사 / 백제 건축사사무소 / 광주 광산구 신창동 1174 (3층)

***변경(사무소명 변경)**
- 차이준 건축사 / TID 건축사사무소 → 주식회사 TID 건축사사무소

***변경(사무소명, 주소 변경)**
- 장정수 건축사 / 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주)맥스유엔 종합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차평동 1208번지 골든빌 310호

***결혼**
- 김성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규성 / 장려 / 2월 11일 (토)

***부고**
- 임정구 건축사 / 싸에이그룹 건축사사무소 성 / 빙무상 - 1월 11일 (수)
- 마재완 건축사 / (주)대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1월 16일 (월)
- 윤익산 건축사 / (주)이건 종합건축사사무소 / 부인상 - 1월 19일 (목)
- 김보현 건축사 / 에이스 건축사사무소 / 부인상 - 1월 22일 (일)
- 최경양 건축사 / 한샘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월 4일 (토)

***광주시 건축 관련 인사이동**
(지방부이사관)
- 이욱현 지방공무원교육원장 → 도시디자인국장
- 이병렬 도시디자인국장 → 자치행정국장 (지방기술서기관)
- 이규남 문화관광체육정책실 문화수도 예술과 → 도시디자인국 도시디자인과장(승진)

- 안용훈 도시디자인국 도시재생과 → 도시디자인국 도시재생과장(승진)
- 이종근 종합건설본부 건축실비부장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장
- 이기수 도시디자인국 도시디자인과장 → 종합건설본부 건축실비부장
- 김형호 소방안전본부 방재관리과장 직무대리 → 남구(승진)

(지방시설사무관)
- 박 산 종합건설본부 건축과장 → 문화관광체육정책실 문화수도예술과
- 박 용 도시디자인국 도시디자인과 → 도시디자인국 도시재생과(승진)
- 윤정권 남구 → 종합건설본부 건축과장
- 이은상 도시디자인국 건축주책과 → U대화지원본부 경기시설과
- 신중형 자치행정국 회계과 → 광주광역시 (재)광주비엔날레(승진)

(지방시설주사)
- 조석현 시립미술관 →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체육진흥과
- 류승원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체육진흥과 → 문화관광체육정책실 문화수도예술과
- 신규철 종합건설본부 → 도시디자인국 도시디자인과
- 이한국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 → 도시디자인국 도시재생과
- 박홍철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 도시디자인국 건축주책과(승진)
- 김운오 도시디자인국 도시디자인과 → 도시디자인국 건축주책과
- 김중호 문화관광체육정책실 문화수도 예술과 → 도시철도건설본부

▶▶▶ 전남 건축계 동정

***변경(소재지 변경)**
- 한삼섭 건축사 / 한국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연향동 1513-6

***2012년도 시무식 개최**
- 일 시 : 2012. 1. 5(목) 16:00
- 장 소 : 전남건축사회 사회의실
- 참 석 자 : 전남건축사회 임원 3개 지역 건축사회 사무직원
- 주요내용 : 시무식, 다과회, 직원 실무교육

***전라남도 건축 관련 인사이동**
- 나승권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 공무원 교육원
- 정동환 전라남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파견 → 행복마을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82호 2012-01-17)
· 개정이유, 주요내용
건축물의 자연적·사회적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의무화하며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2조제4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 2, "건축물의 유지·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1조제4항 중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으로 하고, 같은 항에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유·이용"을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75조제4항 중 "건축주 및 소유자"를 "건축주, 소유자 및 관리자"로 한다.

제113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

주택성능등급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공공주택) 세부평가항목을 통합하고, 하나의 기관에서 인정 및 인증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이 2012.1.12 개정(2012.1.7.1 시행)되었으나 업무에 참고하기 바름
*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 세부내용 대한건축사협회 법령소식(736면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a.or.kr>) 법령정보란 참조

▶▶▶ 광주·전남·전북지역 1월 지역축제 안내

- 02. 19 (일)까지 초대형 어린이 체험놀이터 에어키즈파크 -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 02. 19 (일)까지 남도 묵향 내일을 가다 - 한국화 100년 전통과 정신
- 02. 19 (일)까지 내셔널 지오그래픽展 - 광주 북구 광주문화예술회관
- 02. 26 (일)까지 광주 레이싱 파크 -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 02. 26 (일) 2012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 - 전남 광양시 섬진강 둔치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2012년 10월 광주에서 뵈겠습니다.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 춘 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업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범조타운 206호
전화: 062-226-7400 팩스: 062-225-5310
홈페이지: nicelawyer.co.kr/윤변호사.com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심상봉, 유분근, 이성림
편집인: 박홍근
편집장: 박승국
편집위원: 이순미, 서재형, 강필서,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정관성, 이광영, 박성윤, 전경호, 박종호, 양우현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심화문화사 T.062)222-6660
광고신청: T.062)521-0025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금: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문 형 록 | 반석기(조이앤씨주) 100만 원
강 석 훈 | 건축사사무소 신영 50만 원

건축문화 사랑

표 / 지 / 설 / 명

도심정착 참여형 프로젝트
광주도심재생 전국 공모전

한 후 이화일은 공모전에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건/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필/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 (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매달 25일
문 의: 광주건축사회 (Tel: 062-521-0025)
E-mail: gjk@empa.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는 작가의 사진과 사루소명, 직책 및 연락처를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반갑다. 나의 동굴...」

최소잔 학생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나의 우울했던 시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의 나는 우울한 재즈와 어두운 인디 팝을 듣고 주위의 사람들을 정리해 보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다. 내 주위의 진심어린 친구를 세어보고 그 수에 경악하며 슬퍼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 주위에는 서스없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지만 우울의 늪에 갇혀 살다보니 한 명, 한 명 밀어내기 일수였던 것 같다. 나는 나만의 세계에 빠져 모든 것에 힘을 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다. '오늘도 하루를 간신히 보냈구나.' 라는 생각으로 집에 도착했다. 그때 당시 나는 예술인들이 꾸러 나가는 인터넷 사이트에 자주 접속했었고, 그날도 어느 날처럼 업데이트 된 글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발견한 글의 제목은 '3x5 magazine'.

한동안 평소의 나처럼 3x5 매거진에 올라와 있는 글만 확인했다. 그러다 하나씩 올라오는 사진들에 어느덧 동화되고 있었는데도 모른다. (지금 생각해보면 동화의 수준을 넘어 사진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었던 것 같다.) 그들을 만난 것이 점점 기뻛다. 그리고 나도 나를 표현하고 싶었다. 나를 드러내는 것에 웅색했던 내가 끝내는 배가 찢어질듯 아파할 정도로 그들과 함께 하고 싶게 되었다.

어느새 바람이 조금 차가워졌을 때, 어렸을 때는 아빠의 키만큼 커 보였던 수동 카메라를 장롱의 깊숙한 곳에서 발견했다. 카메라에 대해 전혀 모르는 내게 그것은 최고로 어렵고 손대면 고장날 것만 같은 무시무시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호기심을 이기진 못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첫 필름을 인화하고 따끈한 사진이 내 손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기쁨을 나누기 위한 장소로 3x5 매거진을 선택했다.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돌아오는 칭찬과 기쁨의 말들이 나는 행복해 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나고 인화된 사진을 5장 쯤 올렸을 때 불현듯 '나는 나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카메라 성능을 자랑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사진은 고가의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하얀 여백에 머리카락 하나 휘날려도 그것은 위로였고 선물이었던 것이다. 분명 처음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동화되어 가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어느덧 위로의 장소에 포장된 나를 내세우며 곁잡기식으로 그들 사이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우울하기 시작했던 2005년 초의 사진을 한 장 올렸다. 그 사진은 어둡컴컴한 방에 보이는 것은 내 반쪽의 얼굴이었고 '잘 바라보아야 보이는 안경테를 찾아주세요.' 라는 문구를 함께 적었다. '잘 바라보아야 보이는 제 마음을 찾아주세요.' 라는 내 마음을 그들이 쉽게 알아 차려주었다. 그리고 내 글에 달린 댓글들은 모두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었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니어서 좋았다. 그들은 진심으로 나의 글에 자신의 경험담까지 보태어 나의 상처를 보듬고 있었고 나는 차츰 모두 보여주었다고 위안을 하며 숨겨 두었던 나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진은 2005년의 완연한 가을 11월에 3x5 매거진의 컬렉션에 뽐히게 되었고 나의 가을은 중단하기만 했다. 주위의 바람은 따뜻했고 세상은 모두 나를 향해 박수를 치는 듯 기뻛다. 이 기쁨은 컬렉션 당첨의 기쁨이 아니었다. 나의 전부를 따듯하게 주는 이들에게 보내는 나의 진심이었고 그들이 보내는 위로의 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

그들이 내게 준 것은 단지 한 줄의 글이었지만 나는 해답을 받았다.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이유였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무심한 듯 길을 걷고, 얼굴엔 차가운 무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자그마한 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힘을 얻는다. 그것은 비싼 차도 아니고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간 병에도 아니다. 누가 겨울이 차갑다고 했는가.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하라. 당신의 겨울은 따스할 것이다.

청춘의 시(時)

김추자 주부
광주시 서구 쌍촌동

별을 보며
청춘의 시(時)를
생각한다



나도 저 별처럼
반짝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달을 보며
청춘의 시(時)를
생각한다

나도 저 달처럼
세상을 감동시키고자
한 적이 있었는데

해를 보며
청춘의 시(時)를
생각한다

저 해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싶었는데

오늘 단 하루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 별과 달
그리고 해와 같이
나시 오시 않는

청춘의 시(時)를 생각한다.

「청춘의 문장들」

김연수 지음 / 마음산책

위소연 시인
(주)건축사사무소 휴먼앤스페이스



「김연수」라는 작가를 알게 된 건 설계를 막 시작했을 즈음이었다. 신문에서 '인문학의 미래'였던 가... 그 비슷한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오래 돼서 어느 신문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칼럼은 소설가이자 시인으로 서 인문학의 미래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칼럼의 의뢰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는 얘기로 시작되었다.

그리고는 N으로 시작하는 포털사이트에 인문학의 미래로 검색을 했더니 1,000원짜리 보고서 지료가 뜨더라는 것이다. 작가는 이미 원고료를 받아버린 칼럼을 위해 자료를 다운을 받을 것인가 말것인가를 고민하면서 1,000원이면 좀 비싸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

N으로 시작하는 포털사이트로 가볍게 시작한 칼럼은 단 돈 1,000원의 결제를 망설이고 있는 것이 '어두운 인문학의 미래'가 아닐까 라는 씁쓸한 결론으로 끝이 났다.

그때 나는 비티엘 작업으로 매일같이 출퇴근하던 시기였다. 밤 12시엔 동남, 즉발 등의 야식을 시켜먹으며 어릴때 부터 꿈꿔왔던 설계에 첫 발을 담은 신입사원이었다. 야식을 먹을 때면 여러 사무실의 실장님들이 모퉁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아이들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전과를 하거나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농담만 진담만 충고를 하던 때였다. 충고는 매일밤 계속 되었었다.

그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본인들은 왜 이 일을 하고 계시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곤 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건축사를 준비할 즈음에 김연수 작가의 '청춘에 문장들'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다. 밥 굶기 딱 좋다는 글쟁이가 되고픈 청년 김연수의 이야기들이었다. 미래가 밝지 않아도 글쓰기에 미쳐있었던 청년 김연수의

모습에서 지난날과 오늘날도 곳곳이 설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였다.

책 속에 이런 글이 있다.

「완전히 소진되고 나서도 조금 더 소진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내가 누구인지 증명해 주는 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 건디면서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싶었다.」 -67P-

건디면서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일이라...

1,000원의 결제를 망설이던 김연수 작가와 웃으며 학생들의 전과를 권유 했던 실장님들이 바로 일을 건디면서 동시에 누리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본인이 누리며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계산 없이 지금껏 설계를 계속해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건디면 낸 사람만이 건디면서 동시에 누리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충고였다는 걸 지금은 알 것 같다.



가을이야기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것은 색이죠. 운산을 필경에 맞이오듯 붉다는 가을 그 색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나뭇잎 사이사이 재마디의 색을 밝히는 빛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모든 진실이 아니듯 보여지는 가을의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태호 건축사작 / (주)건축사사무소 영일 빌



병신서원(입교당에서 바라본 만대루의 모습)

동문서원, 소수서원, 도산서원과 함께 조선시대 5대 서원으로 꼽히는 병신서원, 병신원을 마주하고 강과 함께하기가 병신서원은 맑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 자리잡은 병신서원중 중앙에 위치한 만대루를 보며 인공 건축물과 자연, 사람, 휴식과 배움의 공간으로 형성 시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곳. 만대루의 만대는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 '적제성루'의 한 구절인 '취병의 만대 박근파심유-푸른 병풍처럼 물러쳐진 산수는 늦을수록 마주 대할만하고 흰바위 골짜기는 여럿 모여 그윽히 즐거기 흥구나'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촬영자 : 박성운 건축사작 / 경북 인동시 휴먼빌 병신동 병신서원

새시대!

대한민국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광주건축사회!
- 시민 곁엔 언제나 든든한 300여 광주건축사회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광주 개최

대한민국 8,000여 건축사들의 축제가 광주에서 개최됩니다. 광주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축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행사명 : 2012 대한민국 건축사대회
- 일 시 : 2012. 10월 중
- 장 소 : 광주 지역 일원



▶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개최

매년 광주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개최하고 있는 광주건축·도시문화제가 올 가을,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 행사명 : 제9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 일 시 : 2012. 10월 중
-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 서구 차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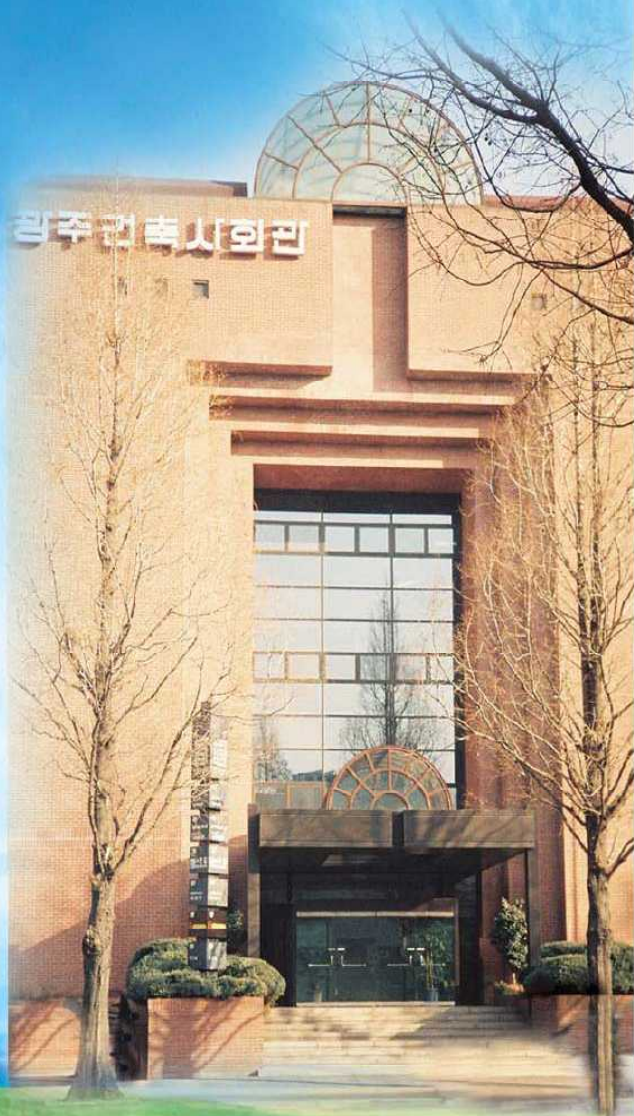
▶ 국제건축문화 교류

광주건축사회에서는 지난 1998년부터 일본 JIA 루쿠오카회와 활발한 건축문화 교류를 통해 한·일 양국의 새로운 건축문화를 창조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에는 '교류는 미래를 향한 도전'이란 제목의 교류 10주년 기념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 시민안전 결의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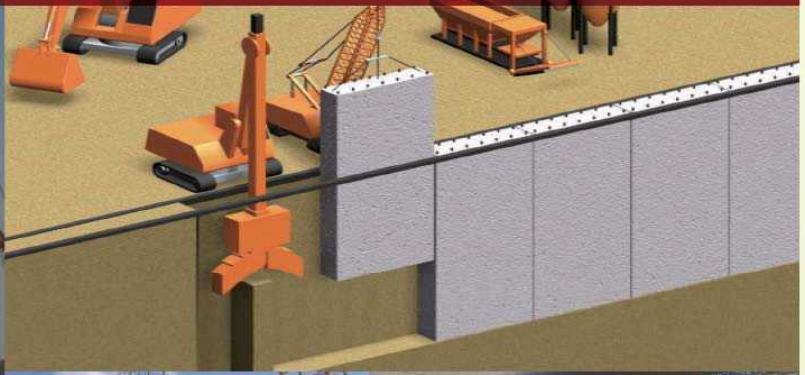
광주건축사회원은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확인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위험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500-876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485 (중흥동 694-10)
Tel.(062)521-0025~6 Fax.(062)528-0026
홈페이지 <http://gjkira.kira.or.kr>

프리캐스트 판넬을 이용한 지중연속벽 공법 **JTPC WALL**



지하 구조물, 이젠 바뀔 때입니다

혁신적 지중 연속벽 공법 - PC WALL

친환경 공법 · 공사기간 단축 · 안전성 우수 · 높은 경제성



고밀도 지반보강 **GEOCON 공법**



빠른시공, 무소음, 무진동, 비배토공법 **ROTARY PILE**



신축, 증축, 리노베이션, 기초보강 **MICRO PILE**



중·저층 건물 지반보강 **팬이기초**

본 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325-1번지 반석빌딩 2층

T. 031) 577-1673 F. 031) 577-1674

광주지사. 김유성 이사 010. 5007. 8437



반석기초이앤씨(주)

www.bs-base.co.kr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 ISO 9001인증